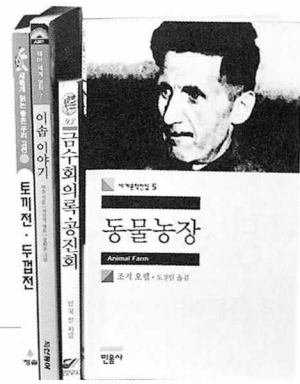


# 인간의 위선과 부조리 풍자하는 동물이야기들

우화소설 속에 그려진 동물들의 행동과 심성



우화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빌어 인간의 약점, 잘못된 가치관을 풍자하고 처세의 길을 암시한다. 현실세계의 동물들은 인간의 능력과 확연히 줄을 긋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인격을 부여받은 우화 속 주인공들은 인간처럼 자유롭게 지껄이고 행동한다. 바로 여기서 유머와 해학, 촌철살인의 현실비판이 탄생한다.

**인간의 보편적 도덕이나 처세술 담내** 우화소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이솝 이야기》, 혹은 《이솝우화》다. 이 책은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인

간 세계와 인간성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이솝이 창조한 동물군상은 가히 인간세계의 축소판이다. 욕심을 부리다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마저 잃어버리는 개, 주운 사자탈을 쓰고 친구들을 놀리다가 들통이 나 웃음거리가 되는 나귀, 너무 많이 먹어 나무구멍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여우 등 어리석은 동물들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여름내 땀 흘리며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 소박한 시골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시골쥐 등 지혜로운 동물들도 등장한다.

한국 근대소설의 길을 예비했던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나’라는 일인칭 관찰자가 꿈속에서 인간구단대회에 참가한 여덟마리 짐승들의 연설을 듣는다는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 연사로 등장한 동물들은 사람된 자의 책임과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인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내세워 인류를 논박한다. 그 가운데 여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다. 흔히 사람들로부터 요망하고 간사한 것이라 핏박받던 여우는 “우리 여우더러 간사하니 교활하니 하되, 남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도록 주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혹은 말하기를 옛적에 음란한 계집이 죽어서 여우로 태어났다 하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또 있으리오. 사람들은 음란하여 별일이 많으되 우리 여우는 그렇지 않소” 하며 오히려 자신이 받은 간사함의 화살을 인간에게 되돌려준다. 급기야 “만일 우리더러 사람 같다면 우리는 그 이름이 더러워서 아니 받겠소” 하고 일침을 놓을 정도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 도덕이나 처세술을 이야기한 것이 우화라면, 풍자는 당대성의 서사장르다. 조지 오웰이 1945년 발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동물농장》은 풍자소설의 대표적인 예다.

어느 날 존스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킨

다. 인간의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혁명은 성공적이어서 농장주인은 떠나고 동물들은 환호한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혁명을 주도했던 돼지들만 특권을 누리게 되고 수뇌부의 권력다툼으로 ‘스노볼’이 추방당한다. 그 후 권력을 거머쥔 ‘나폴레옹’의 독재가 시작되고, 동물들은 혁명 전보다 더 심하게 착취당한다. 그 사이 교활한 나폴레옹은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게 되고, 마침내 금기했던 인간들과의 상거래를 시작한다.

**풍자와 우의로 시대와 사회구조 비판해** 풍자가 물어뜯고 비꼬는 것은 그런 풍자를 잉태한 당대 사회다. 그러므로

풍자소설 속 주인공들은 당대의 실존 인물이고 제도와 이데올로기, 사회적 구조, 편견 등은 중심 사건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동물농장》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스탈린시대에 대한 정치풍자다. 주요 인물들의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좀더 명확해진다. 동물들에게 부당한 현실을 일깨우고 반란을 선동한 메이저는 마르크스, 독재자 나폴레옹은 스탈린이다. 혁명1세대지만 중간에 축출당하는 스노볼은 트로츠키며 충실한 일꾼 복서는 프롤레타리아, 나폴레옹을 호위하는 개들은 비밀경찰, 나폴레옹이 뒤바꾼 혁명공약을 의식 없이 주절대는 오리들은 선전대를 상징한다. 그렇다고 《동물농장》이 풍자소설로만 읽히는 것은 아니다. 문장작법이나 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우화소설이 된다.

조선후기 서민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온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은 자라와 토끼를 의인화한 소설이다. 남해 바다의 용왕이 병에 걸리자 토끼의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처방이 내려지고, 자라는 이참에 큰 벼슬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갖은 꾀로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허영에 들떠 자라를 따라갔던 토끼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어렵게 꾀를 내 육지로 돌아온다. 흔히 이 소설은 자라와 토끼의 맞대결 구도로 읽힌다. 하지만 좀더 작품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신병치료를 위해 약한 짐승의 생명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절대군주(조선후기 봉건적 지배자), 화려한 용궁과 대비되는 서민들의 현실에 대한 풍자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순기